

##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내 동생이 수상하다』 성완 글, 방현일 그림, 사계절, 2015

표지 속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자아이가 수상하다. 덩그러니 서 있는 집은 금이 가고 낡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 아이들은 동생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뒤표지까지 펼치는 순간! ‘아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전봇대 뒤에 숨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몰래 쳐다보고 있다. 표지부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책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달말에 사는 민영이네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 사라지는 마을과 떠나는 사람들

현재 근무하는 학교는 10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1400명이 넘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는 반으로 줄었고 학교 곳곳에는 빈 교실이 많아 삭막한 느낌까지 든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주택가도 낡고 오래되었다. 좁고 어두운 골목 사이 사이에 빈집도 많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마을은 점점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떠나고 있다. 학교 앞 큰 도로만 지나면 이제 막 지은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다. 아이들은 초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그리고 낡고 오래된 주택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응달말에 사는 민영이네가 낯설지 않은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온작품 읽기로 이 책을 선정하였다.

### 장편 동화로 온작품읽기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독서 단원의 구성 방향을 살펴보면 5~6학년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강조하되, 주변이나 개인 문제를 넘어 좀 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또 독서가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직업 세계를 관찰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격적인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서는 고학년 아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어떻게 견뎌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때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이란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을 뜻한다.

성찰은 문학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묻고 답하면서 길러질 수 있다. 무엇보다 생생하게 현실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상상을 덧붙였기에 흥미도 있고, 삶에 대한 이해와 배움도 있다. 장편 동화를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깊게 읽는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관련 단위**

5학년 독서단원, 연극단원

**국어과 교과 역량**

문화 향유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성취기준**

성취기준	학습요소
[ 6국05-01 ]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온작품 읽기
[ 6국02-01 ]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 읽기
[ 6국01-02 ]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하기
[ 6국05-04 ]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즉흥극 만들기
[ 6국05-05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작품에 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

온작품읽기 과정

단계	차시	주요 활동
읽기 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전 활동하기</li> <li>• 책 제목, 책 표지 보며 질문만들기</li> <li>• '수상하다' 낱말의 뜻 알아보기</li> <li>• 인물의 성격 더블 버블맵으로 상상하기</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3쪽 읽기</li> <li>• 내용 및 등장인물 파악하기</li> <li>• 비교 또는 차별 당해 본 경험나누기(성인지감수성)</li> </ul>
읽기 중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61쪽 읽기</li> <li>• 추억이란?</li> <li>• 현재 나의 시련, 정말, 희망 Y맵으로 표현하기</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73쪽 읽기</li> <li>• 선생님, 은혜, 재욱, 민영의 입장에서 정리해보기</li> <li>• 내 주변에 등장인물과 가장 비슷한 사람 찾아보기</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88쪽 읽기</li> <li>•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편지쓰기</li> <li>• 가족이나 이웃이 없다면? 몸으로 표현하기</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96쪽 읽기</li> <li>• 타임캡슐에 넣고 싶은 물건을 그리고 그 이유 써보기</li> <li>• 백발마녀는 과연 누구일까? 특징 쓰기</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113쪽 읽기</li> <li>• 감정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민영이와 민국이 감정에 몰입해보기</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4~123쪽 읽기</li> <li>• 진정한 친구란? 우정이란? 한 줄 쓰기</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4~136쪽 읽기</li> <li>• 삽화를 보니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li> <li>• 뒷이야기 상상하여 세 문장으로 적기</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7~145쪽 읽기</li> <li>• 민국이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일까? 모서리 토론하기</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6~155쪽 읽기</li> <li>• 등장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하기</li> <li>• 질문 만들기 활동 시 나왔던 질문에 답해보기</li> </ul>
	읽기 후	1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나은 세상 꿈꾸기</li> <li>•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그림글자로 표현하기</li> <li>•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편지쓰기</li> </ul>

## ● 읽기 전 활동

고학년의 경우 정답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조심성과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읽기 전 활동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책을 읽고 싶은 동기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상상이 자유로우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 질문 만들기

책과 관련된 질문을 만든다. 교사의 의도에 따라 흥미를 위한 질문,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문제 상황이나 딜레마에 관한 질문으로 나눠서 만들도록 한다. 하지만 질문이 꼭 이 세 가지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빨간 망토를 하고 있을까? 집은 왜 허물어져 가고 있을까? 누나는 전봇대 뒤에서 동생을 몰래 보고 있을까? 등의 질문을 하고,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말한다.

질문은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적극적으로 읽도록 하며 책을 다 읽은 후 읽기 전 만든 질문에 답하면서 책의 내용을 갈무리할 수 있다.

질문 형태	학생들이 만든 질문
흥미를 위한 질문	- 표지에 있는 사람이 동생일까? - 집은 어느 동네에 있는것일까? - 남자아이는 빨간색을 좋아할까?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 왜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을까?
문제 상황이나 딜레마에 관한 질문	- 왜 빗방울 색깔이 다를까? - 왜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고 있을까? - 동생이 왜 빨간 망토를 하고 있을까? - 동생이 왜 혼자 있을까?

### ■ ‘수상하다’ 낱말을 색깔로 표현하고 동생의 수상한 점 찾아보기

수상하다는 낱말이 들어간 영화 및 드라마 포스터, 책 표지 살펴본 후 ‘수상하다’라는 것이 주는 느낌을 색깔로 표현하고 이유를 씁니다. 수상하다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지라도 색깔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쉽고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수상하다는 의미를 알게 된 후 표지를 보고 동생의 수상한 점을 탐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느끼면서도 진지하게 찾아볼 수 있다.

#### 【낱말의 느낌을 색깔로 표현하기】

- 빨강, 동생의 빨간 망토가 수상해서.
- 황토, 수상하다면 추리를 할 것 같은데 탐정 대부분 황토색 옷을 입기 때문에.
- 보라, 비가 오는 날은 항상 보라색이 생각나서.
- 검정, 어두운 밤에 수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 흰색, 수상한 일이 일어나면 뭔가 알 수 없는 것 같고 앞이 밝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동생의 수상한 점 찾기】**

- 낡은 집 앞에 서 있는 것
- 빨간 망토를 한 것
- 비를 맞고 있는 것. 비가 오는 데 밖에 나간 것.
- 눈치를 살피는 것.
-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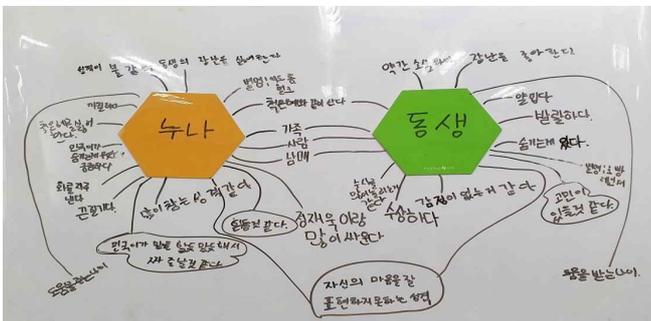
**■ 인물 상상하기**

책 조각은 작품에 있는 문장들을 한 문장씩 조각낸 것이다. 누나와 동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서 문장을 발췌한다. 아이들 수준에 따라 유추가 가능하기 위한 정보의 양을 조절하거나 문장을 정돈하여 제시한다.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책 조각을 읽어주고 모둠으로 돌아와 모듬원과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정보를 간단하게 기록한다.

더블버블맵은 어떤 주제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때 쓰기에 좋은 맵이다. 더블 버블맵 형식을 칠판에 제시하고 한 명씩 나와서 쓰도록 하였다. 친구와 다른 내용을 쓰기 위해 친구가 쓴 내용을 읽으면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읽기 전 활동 <더블 버블맵> 활동 모습



읽기 전 활동 <더블 버블맵> 결과

## ● 읽기 중 활동

### ■ 성인지 감수성 기르기

아래는 챗터 1,2에 나오는 할머니와 엄마의 말이다. 아래 내용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불균형을 생각해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형제자매 간의 차별을 당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차별을 당했을 때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평소 소극적인 학생도 친구들의 공감과 지지에 힘을 얻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아이고, 가시냐. 할미 귀 안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은 무신. 냉장고에 수박 썰어 놓은 거 있음 께 그거나 한 쪼가리 먹등가. 저것이 머슴아냐, 가시냐냐.(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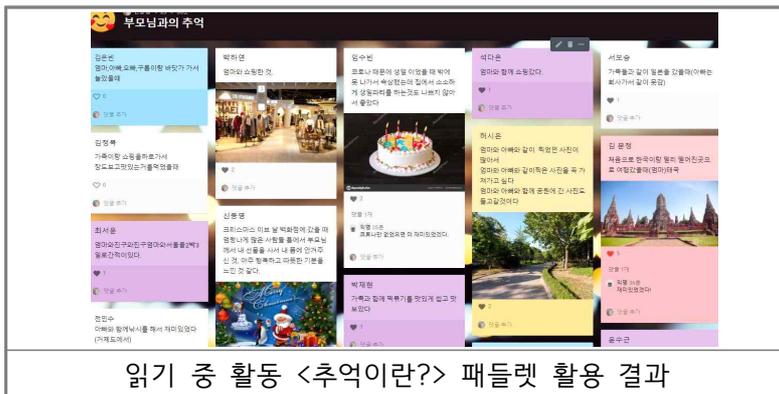
-특하면 민국이에게 “내가 우리 집의 유일한 남자”라며 뽀뽀를 하는 엄마. “내가 우리 가문 대를 이을 강아지”라며 엉덩이를 두드리는 할머니.(25쪽)

-“자고로 여자가 기가 너무 세면 사내를 잡아먹는 법이여.”(31쪽)

### ■ 추억이란?

아빠와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국이와 그렇지 않은 민영이. 둘 중 누가 불쌍할까? 란 질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 부모님과 추억을 기억하던 기억하지 않던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슬픈 일이라는 한 친구의 말에 모두 공감했다. 추억의 의미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부모님과 추억을 떠올려 본 뒤 패들렛에 입력하여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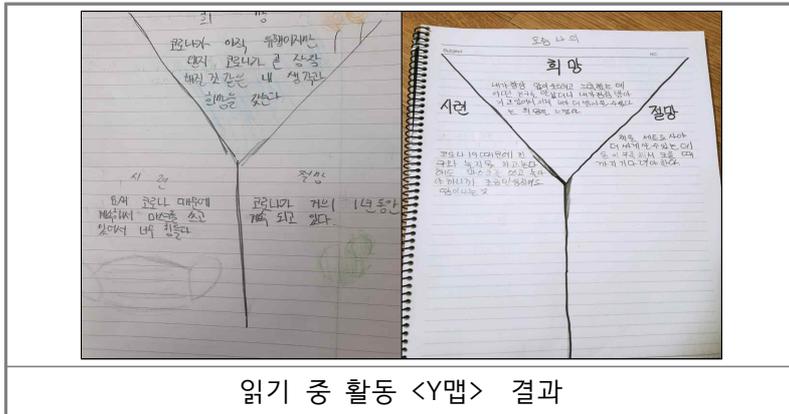
TIP) 패들렛(Padlet)이란 하나의 작업공간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들어와서 접착식 메모지를 붙여 놓는 작업이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을 모으거나 자료를 취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협업과 공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읽기 중 활동 <추억이란?> 패들렛 활용 결과

### ■ 시련, 절망, 희망 Y맵 표현하기

59쪽에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민영이가 느낀 감정을 ‘시련’, ‘절망’, ‘희망’으로 표현하였다. 요즘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시련’, ‘절망’, ‘희망’을 Y맵으로 표현했다. 활동지에 Y로 칸을 나누면 세 칸으로 구분된다. 각 칸에 주어진 주제에 맞는 나의 생각을 쓴다. 쉽고 간단하게 생각과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분반 등교, 온라인학습 등을 시련과 절망으로 썼으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마스크 벗기, 정상 등교 등을 희망으로 썼다.



읽기 중 활동 <Y맵> 결과

### ■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정리하기

이 활동은 입장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나누고 연극 활동으로 연결해도 좋다. 각자 입장에서 정리해 본 후 내 주변에 선생님, 은혜, 재욱, 민영과 가장 비슷한 인물을 찾아보도록 한다. 등장인물과 가장 비슷한 인물 찾기는 이야기 속 내용을 삶과 연계할 수 있으며 비슷한 인물인 까닭을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 고민 등을 드러낼 수 있다.

	선생님	은혜	재욱	민영
비슷한 인물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주인공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인공은 무엇을 느꼈을까?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 - 선생님의 시선

-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생님
-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점심시간, 계단
-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정재욱과 척은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실에 남으라고 했다.
- 주인공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 사람을 화해시켜 앞으로 친하게 지내게 하는 것
-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방과후에 남겨서 야단쳤다.
- 그것을 통해서 주인공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이들이 싸우지 않으면 좋겠다.

-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 - 은혜의 시선

-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척은혜
-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점심시간, 계단
-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도서관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재욱이 뒤에서 밀었다.
- 주인공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없다.
-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방과후에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 그것을 통해서 주인공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재욱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 - 재욱의 시선

-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재욱
-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점심시간, 계단
-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도서관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 척은혜를 뒤에서 밀었다.
- 주인공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랑 사귀어 주지 않은 척은혜를 계속 괴롭히는 것.
-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방과후에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 그것을 통해서 주인공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 - 민영의 시선

-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영
-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점심시간, 계단
-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도서관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 척은혜를 정재욱이 뒤에서 밀었다.
- 주인공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척은혜가 정재욱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
-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오는 척은혜를 위해 버스 잡아 준 것.
- 그것을 통해서 주인공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척은혜가 짜증난다.
-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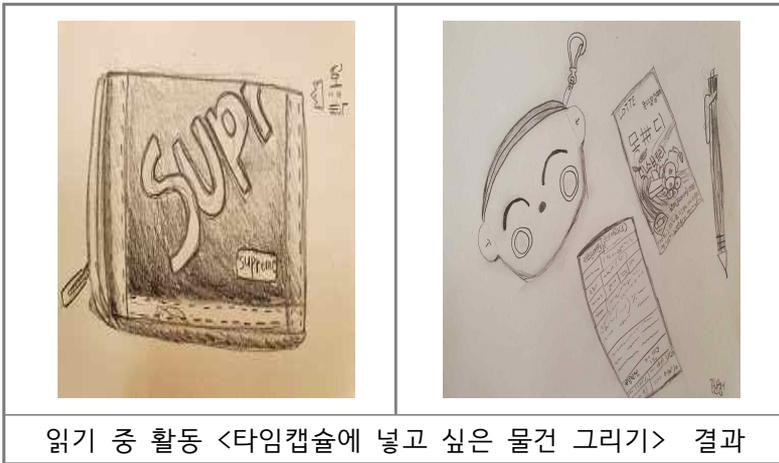
#### ■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공기의 소중한을 모르고 살 듯 가족이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가족이 있기에 또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쓴 뒤 ‘엄마가 없다면?’, ‘동생이 없다면?’, ‘의사가 없다면?’이라고 교사가 상황을 제시하면 한 명의 학생이 정지장면으로 표현하여 다른 학생이 상황을 맞추도록 하였다.



■타임캡슐에 꼭 넣고 싶은 물건은?

‘오금교의 비밀’ 챕터에서는 민영이와 민국이가 사이좋게 타임캡슐을 묻고 ‘의좋은 남매’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타임캡슐을 만든다면 꼭 넣고 싶은 물건을 생각한 뒤 학교에 가져와 세밀화로 그려보는 활동을 하였다. 스마트폰부터 어릴 때 선물 받은 인형, 손지갑, 연필, 안경 등 다양한 물건이 나왔다.



■백발 마녀의 특징 찾아보기

백발 마녀는 이야기가 결말에 이르기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로 잠깐의 등장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96쪽까지 읽은 뒤 백발 마녀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이야기 속에서 단서를 찾아 예상되거나 추측한 점을 쓰도록 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점	예상 또는 추측한 점
1	개량 한복을 입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보라색이었다.(43쪽)	민영이가 좋아하는 색과 같다. 민영이의 미래 모습인가?
2	얇은 화장은 세련됐고 또... 세상에! 귀를 뚫었다.(43쪽)	세련되고 도시적인 스타일의 할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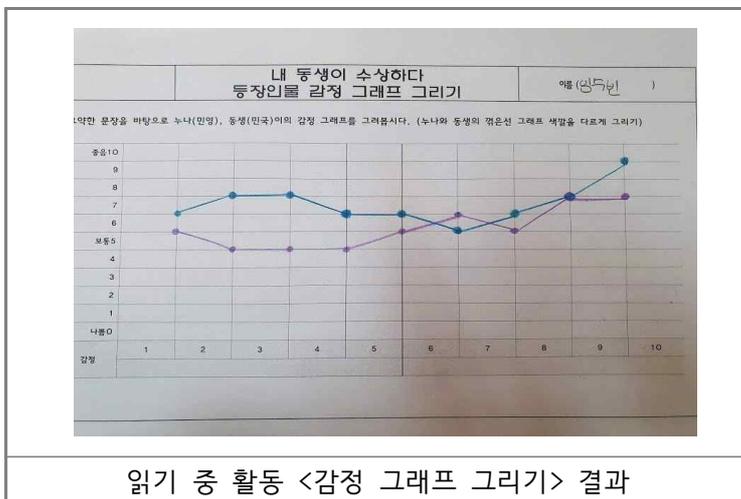
3	그리고 보니 벌써 70년 전 일이구나.(45쪽)	70살이 넘었다.
4	아마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게야.(45쪽)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 두고 있다.
5	나를 자꾸 쳐다보는데도, 어쩐지 편안했 다.(46쪽)	민영이를 아는 사람, 친척일 수 있다.

### ■ 감정 그래프 그리기

‘미행’은 민영이가 민국이의 수상한 점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챕터이다. 민영이가 탐정이 된 듯 민국이를 미행하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민국이의 수상한 점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스릴감이 있다. ‘미행’ 챕터를 열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각 과정에서 느껴지는 민영이와 민국이의 감정의 정도를 0에서 10까지 감정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그런 뒤 민영이와 민국이의 감정을 비교하여 같은 이야기 속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TIP)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감정을 제시하여 감정 그래프 그리기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한다. 감정 그래프를 그리기 전이나 후에 ‘진로 교육’과 연계하여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 그래프 그리기에 익숙해지고 나의 감정 변화를 느껴볼 수 있다.*

	요약한 문장	민국	민영
1	장바구니에 무언가를 주섬주섬 담아서 집을 나섰다.	설렌다.	수상하다.
2	민국이는 집에서 멀지 않은 아랫말 재영언니네 집에 들어갔다.	떨린다.	긴장하다.
3	...(중략)		



■ 진정한 친구란?

‘한판 승부’ 챗터는 민영이를 위해 휴지통에 물을 잔뜩 담아와 재욱이에게 그대로 쏟아붓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들은 이 챗터를 읽고 ‘속이 시원하다!’는 표현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였으며, ‘조용한 애들이 더 무서운 법’이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읽기를 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등장인물에 공감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혼자 읽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한다. 이 분위기를 살려 진정한 친구와 우정이 무엇인지 붙임 종이에 쓴 뒤 학습보드판에 붙여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TIP) 한줄 쓰기 전 ‘친구’, ‘우정’을 주제로 한 호흡이 짧은 그림책 읽어준다.

읽어 준 그림책)

『친구란 뭘까?』 조은수 글/ 채상우 그림/ 한울림어린이

『진짜 친구』 구스노키 시케노리 글/ 후쿠다 이와오 그림/ 베틀북

『진짜 정말 친한 친구』 헬메 하이네 지음/ 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한 우정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li> <li>- 진정한 우정이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li> <li>- 진정한 우정이란 비밀을 다 털어놓을 정도로 믿음직한 것이다.</li> <li>- 진정한 친구란 고민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다.</li> <li>- 진정한 친구란 슬픔을 나누고, 재미도 나누는 것이다.</li> </ul>
<p>읽기 중 활동 &lt;진정한 친구란?&gt; 결과</p>	

■ 뒷이야기 상상하여 세 문장으로 쓰기

131쪽, 133쪽 삽화는 이야기의 분위기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136쪽까지 읽고 삽화를 보며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세 문장으로 쓴다.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세 문장으로만 쓰면 된다고 하면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쓰게 되고 세 문장을 통해 뒷이야기를 간결하게 예상해 볼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깜짝 놀라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li> <li>2. 엄마와 나는 싸움을 멈추고 정말 민국이가 없는지 둘러보았다.</li> <li>3. 나는 문득 고양이가 생각이나 고양이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영이는 사라진 민국이를 찾으러 간다.</li> <li>2. 동네를 헤매다가 고양이가 있는 곳이 생각이 났다.</li> <li>3. 그곳에 민국이가 있었고, 민국이와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영이가 재영이 언니 집으로 민국이를 찾으러 간다.</li> <li>2. 그곳에 민국이는 없었고 우연히 백발 마녀를 만난다.</li> <li>3. 백발마녀의 도움으로 민국이를 찾는다.</li> </ol>
--

### ■ 모서리 토론하기

145쪽까지 읽은 뒤 민국이가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은 놀랍고 당황스러워하였다. 이야기 속 민영이는 민국이의 죽음에 대해 담담하게 말한다. 아이들과 민국이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국이 죽음은 누구의 잘못인지 생각해보았다.

정재욱, 엄마, 민영, 민국, 굴착기 공사하는 사람, 고물상, 태풍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두 가지를 선택한 뒤 선택한 이유를 붙임 종이에 쓴 뒤 칠판에 붙였다. 붙인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를 하였다.

그 뒤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모서리에 모여 자신들의 근거를 강화하는 모서리 토론을 하였다.

모서리 토론은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주제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모서리의 근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서리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반은 총 다섯 개의 모서리를 정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진행한 뒤 다른 모서리에서 나온 의견 중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뽑아 보도록 하고, 토론 후 최종 선택과 그 이유를 발표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모서리 토론 전 정재욱, 엄마, 태풍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다. 모서리 토론과 전체 토론을 거친 뒤 굴착기 공사하는 사람, 고물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졌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상대방의 의견을 검토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토론은 학생들이 명료하게 사고하고 자신 있게 의견을 발표하는 능력을 길러주었고 책의 주제를 이해하고 책을 읽는 태도를 더욱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였다.



읽기 중 활동 <모서리 토론> 활동 모습

■ 등장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하기

책을 다 읽은 뒤 바람재 느티나무를 그렸다. 그리고 그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등장인물을 상상하며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다. 응원의 말일 수도 있고 인사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말이든 상관없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 읽기 전 활동 시 만들었던 질문에 답하기

읽기 전 만들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 그 질문에 대해 답해 보았다. 처음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비교해보고 줄거리를 정리하였다.

● 읽기 후 활동

■ ‘언제-어디서-무엇을’ 놀이

‘내 동생이 수상하다’에 나오는 인물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의 모습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지나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행복한 순간을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교사의 바람을 말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언제-어디서-무엇을’ 놀이를 통해 즐겁게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경험을 나누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4학년 때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쳤다.
방과 후	학교 앞 파배기 집에서	친구와 함께 식혜와 파배기 먹방을 했다.
4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할 때 내가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이겼다.

TIP) ‘언제-어디서-무엇을’ 놀이 방법

- 1) 주제를 제시하고 언제(시간), 어디서(장소), 무엇을(상황)에 맞게 활동지에 적는다.
- 2) ‘언제, 어디서, 무엇을’ 에 맞는 몸짓과 말로 표현한다.
- 3) 나머지 학생들은 앞에 있는 학생이 어떤 시간, 장소, 상황을 표현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발표한다.
- 4) 학생들이 활동이 끝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한다.

### ■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작가는 동화를 통해 미래는 우리가 열심히, 함께 키워 가야 한다고 말하며 슬한 어려움을 겪겠지만 힘내자고 한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그림글자로 표현해 보았다.



### ■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편지 쓰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 속 백발 마녀의 등장은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한다. 백발 마녀가 민영이에게 진정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였을까?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해 줄까?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편지를 썼다.

*TIP) 편지 쓰기 전 미래의 내가 된다면 현재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 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생각거리를 던져 준다.*

### ● 다시 온작품읽기

온작품읽기를 시작하기 전 나는 왜 온작품읽기를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2020년 어느 해보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짧았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실패해도 좋고 계획과 어긋나면 어떠냐는 마음으로 온작품읽기를 시작하였다.

함께 책을 읽으며 그 해답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생각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온작품읽기를 아이들과 해봐야지 하고 백번 생각해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본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교과서의 조각난 글, 분절된 글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없는 책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며 함께 읽는 과정에서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몰입되어 즐거워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주인공의 시련과 절망에 함께 슬퍼하기도 한다. 쉬는 시간이 되어도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책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온작품읽기가 교사에게 주는 가슴 벅참이 아닐까 싶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의 경험에 공감하며 소통한다. 독서가 삶과 연계되는 순간 아이들은 책과 친해진다. 온작품읽기는 독서의 맛을 알게 하여 스스로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는 평생 독자가 되는 가교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 애들아, 선생님이 오늘 읽어 줄 책은 바로 이 책이란다.